

韓國大學生의 子女의 教育觀에 나타난 理想的 리더십類型

金明勳 鄭永潤

明知大 陸軍士官學校

新世代는 리더십에 對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民主的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 보고
져 每年 서울의 特殊大學인 M大學의 新入生을 대상으로 1972년부터 1979년까지의 7年間(19
78年度分은 資料紛失로 除外), K. Lewin이 分類한 세가지 類型(自由放任型, 民主型, 專制型)과 이 類
型的 中間인 折衷型에까지 類型 合計 7個類型에서 한 類型을 攄하도록 하였다. 質疑者의 內容은 '將
次 上司나 長'이 될 경우를 假想하여 部下나 成員에 對하여 어떤 리더십類型을 攄하겠는가? 를 물을
수도 있으나 公式組織에서는 權威나 体面등이 反應을 喚起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접적인 詰問방식
으로 自己 子女의 養育問題를 다루어 나의 子女를 키우고 싶은 리더십(자녀의 養育방식)을 選取選擧
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들 大學生의 大多數가 民主-專制 折衷的인 것으
로 보고 있다. (2)그 다음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부터 차례로 民主, 自由放任-民
主, 및 自由放任-專制-民主의 折衷型이었고 下位그룹에는 自由放任型 專制型과 自由放任-專制的 折
衷型으로 되어있다. (3) 1979년에는 전년에 비해 民主-專制的 折衷型이 줄고 民主型이 현저히 증가하
는 추세를 보였다. 그 앞의 時期에는 年的인 별다른 趨勢를 보기 힘들었다. 다만 民主型이 1972년에서
1977년까지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韓國人의 性格은 西歐人의 그것과 다르며 어
는 면에서는 매우 對照的이다. 그렇기 때문에 思
考나 行動方式, 그리고 他人과의 相互作用으로
이러저는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 類型이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韓國人은 主情的
· 觀念的 · 抽象的 · 靜的인데 비해 西歐人은 合
理的 · 科學的 · 實証的 精神에 立脚한 實質的 · 具
體的 · 力動的이라고 알려져 있다. 政治的 一面
에서 볼 때로 西洋은 二千年前부터 專制政治 · 民
主政治 · 貴族政治 · 寡頭政治 또는 封建領主나
絶對 君主政治등 多樣한 政治體制下에서 生活하
여 왔으나 韓國에는 愛民 · 爲民 · 重民思想에 의

한 東明聖王의 以道輿治, 朴赫居世의 光明聖世,
新羅時代의 和尓制度, 李朝時代의 議政府, 諺문
고, 署經制 등이 있었으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統治者為主 즉 專制君主에 의한 政治支配였던
것이다. 社會的 面에서도 例外가 아니다. 고려사
회의 특징을 계승한 李朝의 社會的 · 文化的 特質
을 安商之(1978)는 (1)고려사회보다 철저한 國王
을 頂點으로 하는 身分社會이며, (2) 治國의 政治
理論인 崇儒排佛의 철저한 政治化와 王權에 의
한 專制的 · 中央集權體制라 하여 李朝의
社會가 專制的 · 權威的임을 지적하고 있다. 尹泰
林도 "우리의 思考方式中 多분히 權威主義的인

것이 우리의 日常行活을 支配하고 있다(尹泰林, 1970, p. 224)”라 하였고 李圭泰(78·下)도 韓國人에 權威意識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原因은 前述한 바와같이 韓國人이 내세우는 儒敎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10년 8월 28일 「韓日合邦에 관한 條約」이 締結됨에 따라서 韓國人의 日本 侵略에 의한 專制的·軍國主義的인 日本의 武斷 및 強壓的인 植民地 統治가 韓民族에게 또 하나의 專制主義의 性格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換言하면 韓國人에게는 그 以前도 그랬었지만 적어도 李朝 27日 519년과 日帝統治 30年 1945年 以上을 專制的·權威主義的인 環境과 條件下에서 生活하여 많은 部面에서 弱者나 自己보다 下位者에게 強壓的인 抑制을 加하여 이들을 服從시키려는 加虐的인 性格(sadistic character)과 強者나 地位가 높은 上級者에 대해서는 그 權威를 尊崇하고 盲目的으로 복종하는 被加虐的인 性格(masochistic character)인 專制的·權威主義的인 獨裁的인 思考나 行動을 갖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統治性格要因이 韓國人의 意識構造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음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1945年 日本의 統治에서 解放을 맞은 民族의 光復은 個人을 尊重하며 合理的이고 實績(merit)을 중히 여기는 美國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와는 正反對的인 民主主義의 물결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兩極端的인 統治下에서 成長하고 教育을 받아 온 新·舊世代間의 意識構造 역시 判異함은 당연한 일이며 이 두 思潮는 어느 面에서는 重疊(overlapping)되거나 混沌되고 또는 對立의 深刻性을 드러내고 있다. 즉, 1945년을 起點으로 日帝의 教育을 받아 온 世代는 專制的·權威的인 데 反하여 解放後 美國의 이른바 新교육을 받은 世代는 民主的·人間關係的인 意識構造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리더와 成員間의 관계

로 형성되는 리더십도 다르리라고 判斷된다. 그렇지만 人間의 意識構造는 점진적·長期的으로 變化하기 때문에 專制的인 面에서 民主的인 概念으로서의 變化도 급격하기보다는 서서히 바뀌고 解放後 一世代(one generation)에 이른 오늘날 教育面이나 意識面에서 상당히 變해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과연 지금은 어느 階層까지 變化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無益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와같은 狀態에서 보면 (1)1950年以前은 專制的이고 (2)1951年—1960年은 專制와 民主의 갈등狀態에 있지만 專制的인 面이 強하고, (3)1961年—1970年은 專制와 民主의 갈등狀態에 있으나 民主的인 面이 強하며, (4)1971年後는 民主的인 面이 보다 強하다는 豫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段階로 나눌 것은 人間의 意識構造의 變化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어도 30年 一世代의 時間的인 經過가 절대적으로 所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60年代 後半부터 教育을 받아 온 世代들이 생각하고 있고 理想的인 리더십 類型은 그 以前의 世代들이 專制的·權威的인 데 비해 어떠한 정도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장차 그것은 어떻게 變化해 나갈 것인가를 推論해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韓國의 내일을 짚어지고 나갈 大學生의 리더십 類型을 알아내는 것도 價値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이것을 K. Lewin이 分類한 專制的·民主的·自由放任型의 세가지 類型을 기본으로 하여 考察하여 보려는 데 本 研究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方 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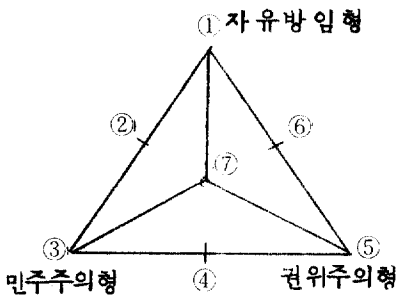
調査對象. 調査對象은 서울에 있는 特殊大學인 M大學의 第一次 學科試驗에 合格하여 第二次 試驗(面接·身體檢査)에 應試한 學生全員이었다.

調査道具와 節次. 二次試驗에 응시한 학생 전원

에게 質疑書를 配布하여 応答을 알아 最終合格生것만 뽑아 處理하였다. 対象學生은 1972年度 新入生부터 1979學年度 大學生까지 8年間 포함했으나 그 中 1978年度分은 資料를 紛失하여 이어서 除外되어 7年間的 자료만을 分析하였다. 使用된 設問誌는 다음과 같다.

〈리더십 類型設問〉

사람은 社會生活를 통하여 成長하고 있으며 이 過程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에게 影響을 주거나 影響을 받는 相互作用을 하는 일면 相互 의존과 우월의 主從적 관계를 이루는 리더십 현상도 볼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리더십을 K. Lewin은 크게 권위주의형 (전제주의; 支配型), 민주주의형 및 자유방임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유형에 대한 諸君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고자 하니 이에 대하여 對答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 ①자유방임형 ③민주주의형 ⑤권위주의형이 있으며 또한 각각 그 중간이 되는 ②자유방임형과 민주주의형의 절충형, ④민주주의형과 권위주의의 절충형, ⑥자유방임형과 권위주의형의 절충형, ⑦이 세가지(①, ②, ③)유형 전부의 절충형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諸君은 이 번호 하나를 선택하여 아래 물음의 빈칸에 그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기명입니다. 설문, 나는(정래) 나의 자녀를 ()으로 키우겠다.

各 大學生들이 本質疑書의 項目인 리더십類型에 대한 概念이나 定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이와같은 개념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設問前에 이에 대한 說明을 하였지만 그러한 우려를 全而으로 排

除할수는 없었다고 본다.

結果 및 論議

調査資料를 分析·評價하는데 있어서 性, 年令, 出身道, 學歷別 등으로 区分하여 處理하지 않았다. 그 理由는 対象이 全部 男性이며, 年令도 19~21才로, 그 中 滿19才가 70~80%를 占하고 있고 學歷도 高卒이 99%内外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同質集團의 性格을 띠어 別差異가 없을 뿐더러 나누어 보았다하더라도 大多數를 차지하고 남는 部分은 그 事例數가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또 出身道別·成長地別로 区分하여 다룰 수도 있으나, 이것 역시 全國에서 募集한 것으로 道別로 区分하여 그 事例數가 적어져서 結果의 妥當度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선 M大學 新入生들이 指向하고 있는 리더십類型을 年度別로 나누어 보고 그 結果를 總括해 보기로 한다. 각 年度別 結果가 表1에 나와 있다.

1972년에는 対象總員 235名中, 民主專制의 折衷型에 59名, 35.1%로 第一 高이 對答했고 다음이 前者보다 1名이 적은 58名, 34.7%인 民主型이며, 셋째가 自由放任-民主의 折衷型이 53名, 22.6%로 나타났으며 세 類型이 共히 50名以上이 對答하였다. 네번째는 自由放任-專制-民主의 折衷型이 35名, 14.9%를 示顯하고 있다. 1973년에는 總대상자 301名中 前年度와 같이 民主-專制의 折衷型에 109名, 36.2%가 對答하였으며 다음이 역시 前年度와 같은 民主型에 75名, 24.9%가 反應을 보였고 第3位는 前年度에는 自由放任-民主의 折衷型이었으나 이번에는 第4位였던 自由放任-專制-民主의 折衷型이 浮上하여 64名, 21.3%를 占하고 있음은 前年度와는 다른 現象이라 할수있다. 第4位는 自由放任-民主의 折衷型으로 36名, 12.0%를 示顯하고 있다. 1974년

표 1. 年度別로 본 大學生들이 각 理想的 리더쉽 類型을 선택한 百分率

類 型 調査年度	放 任 型	民主-放任 折衷型	民 主 型	民主-專制 折衷型	專 制 型	放任-專制 折衷型	放任-民主 - 專 制 折 衷 型
1972 (n=235)	3.8	22.6	34.7	35.1	2.1	6.8	14.9
1973 (n=301)	1.3	12.0	24.9	36.2	1.7	2.7	21.3
1974 (n=381)	5.8	18.1	20.5	27.8	2.1	4.5	21.3
1975 (n=355)	0.6	12.7	18.3	38.3	2.3	2.8	25.1
1976 (n=379)	0.5	14.8	16.9	38.3	1.8	2.4	25.3
1977 (n=308)	0.3	17.2	15.9	44.7	1.3	4.5	15.9
1979 (n=332)	6.9	21.7	26.5	19.6	3.3	6.3	13.3*
計 (n=2291)	2.7	16.8	20.8	33.1	2.1	4.1	
$x^2=180.00, df=36, p<.005$							

* 무응답 確率 2.4가 포함되었음.

에는 표 1에서 볼수 있는 것과같이 民主-專制의 折衷型이 106名, 27.8%를 보이고 있다. 이 類型이 앞의 2個年度에서는 35.1%와 36.2%로 首位를 차지하였으나 百分率로 보면 不過 27.8%로 앞의 2個年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다. 第2位는 自由放任-專制-民主 세 類型의 折衷型으로 81명, 21.3%, 第3位는 78名, 20.5%를 占한 民主型, 第4位는 前年度와 같은 自由放任-民主의 折衷型으로 69名, 18.1%이다. 1975년에는 第4位까지는 前年度인 1974年の 結果와 같다. 다만 各 類型이 占한 比率는 前年度와 差異가 있다. 즉 首位를 차지하고 있는 民主-專制的 折衷型이 136名, 38.3%로 前年에 비해 10.5%가 上昇한 一面 다른 類型의 比率는 相對的으로 下降하여 自由放任-專制-民主의 折衷型은 89名, 25.1%, 第3位는 民主型으로 65名, 18.3%, 第4位는 自由放任-民主의 折衷型 45名, 12.7%이다. 1976년에는 7個年을 통털어 唯一하게 各 類型의 順位가 前年度와 똑같고 百分率

도 前年度와 大同小異하여 別 差異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第一 많은 応答을 한 民主-專制的 折衷型이 145名이고 이것이 차지한 百分率은 前年度와 같은 38.3%, 다음의 自由放任-專制-民主의 折衷型은 96名으로 25.3%로 前年에 비해 0.2% 增加하고 있으며 第3位인 民主型과 第4位인 自由放任-民主의 折衷型은 各各 16.9%와 14.8%를 나타내어 前年度 比率의 18.3%, 12.7%보다 -1.4%와 +2.1%의 輕소한 차이밖에 나타내고 있지 않다. 1977年の 反應은 民主-專制的 折衷型이 138名, 44.7%로 首位를 차지하였으나 第2位는 종래와는 달리 自由放任-民主 折衷型이 처음으로 53名, 17.2%로 浮上하고 自由放任-專制-民主의 折衷型과 民主型은 똑같이 49名으로 15.9%를 나타내어 第3位와 第4位를 共同으로 占하고 있다. 1979年度의 集計結果는 지난 6年間과 달리 民主型이 88名으로 26.5%를 占하여 그 比率는 크지 않더라도 처음으로 首位를 차지하였

고 다음이 自由放任-民主의 折衷型 72名, 21.7%, 그리고 民主-專制의 折衷型 65名, 19.6%, 自由放任-專制-民主의 折衷型 44名, 13.3% 順으로 되어 있다. 이 年度의 特異한 것은 無反應이 8名, 2.4%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以上 7年間の 資料를 整理한 것은 年度別로 集計하여 이를 總括하였다. 이를 보면 民主-專制의 折衷型이 第一 많은 人員 즉, 總 2291명의 1/3인 33.1%를 占하는 758名, 다음이 民主型 477名, 20.8%, 自由放任-專制-民主의 折衷型이 458名, 20.0% 그리고 自由放任-民主의 折衷型으로 384名, 16.8%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에서 自由放任型, 民主型 및 專制型과 같은 單一類型보다 各 類型의 折衷型을 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第 4位까지의 類型中 3個類型이 折衷型이며 또 7個類型에서 비록 折衷型이 4個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折衷型이 획득한 人員과 百分率은 1695名 74.0%로 全體人員의 약 3/4을 占有하고 있다. 또한 全體의 單一類型은

年度가 지남에 따라 百分率이 下陷傾向에 있는데 比해 折衷類型은 대체로 保合내지는 上昇傾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年度別 類型別 頻度の 差의 意義度를 검증키 위하여 χ^2 을 적용 分析해 본 결과 $\chi^2=18000$ 으로서 $p < .005$ 水準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大學生의 리더쉽類型은 調查該年度인 72~79까지 意義 있는 變化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表 1의 類值로 보아 民主-自由放任型, 그리고 民主型이 1976年이나 1977年까지 減少 추세로 보여진다. 같은 해에 특히 1977年에는 民主-專制 折衷型이 증가하고 1977, 1979兩年에는 放任-民主-專制의 折衷型이 減少를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의 계속적인 追隨研究에 依해 검증되어야 하겠지만 國民意識水準, 政治制度, 外來文化, 民主教育 등의 要因이 作用함으로써 예기되는 現象이라 하겠다. 大學生이 바람직한 類型을 %를 고려하지 않고 第一 많이 揔한 것을 第一位와 같은 要領으로 整理하여 본 것이 表 2 이다

표 2. 年度別로 大學生들이 보인 리더쉽 類型選好

調査年度	順 位						
	1	2	3	4	5	6	7
'72	民主-專制 折衷型	民主型	自由放任- 民主의 折衷型	自由放任- 專制-民主 折衷型	自由放任- 專制의 折衷型	自由放任型	專制型
'73	"	"	自由放任- 專制-民主 의 折衷型	自由放任- 民主의 折衷型	"	專制型	自由放任型
'74	"	自由放任- 專制-民主 의 折衷型	民主型	"	自由放任型	自由放任- 專制의 折衷型	專制型
'75	"	"	"	"	自由放任- 專制의 折衷型	專制型	自由放任型
'76	"	"	"	"	"	"	"
'77	"	自由放任- 民主의 折衷型	民主型·自由放任 ·專制 折衷型	"	"	"	"
'79	民主型	"	民主-專制 折衷型	自由放任- 專制-民主 의 折衷型	自由放任型	自由放任- 專制의 折衷型	專制型

거의 第1位에는 民主-專制的 折衷型이 차지하고 있고 第2位는 民主型, 自由放任-專制-民主의 折衷型의 세 類型이 年度에 따라 交代로 占有하고 있으며, 第3位와 第4位도, 第2位에서와 같이 交代로 차지하고 있다. 第5位, 第6位 그리고 第7位는 自由放任-專制的 折衷型, 專制型 및 自由放任型의 세 類型이 相互 交代로 占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 特色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7個 類型이 크게 두 部分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每年 第1位부터 第4位까지의 順位를 上位구분이라하면 이것에는 自由放任-民主의 折衷型, 民主型, 民主-專制的 折衷型 그리고 自由放任-專制-民主의 折衷型의 네 類型이 늘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 類型은 단 한번이라도 上位구분에 끼지 못하고 이른바 第5位-第7位까지의 下位구분에만 屬하여 결국 上·下位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類型으로는 專制型과 自由放任型을 들 수 있다. 이 類型들은 平均比率이 不過 2%内外를 보이고 있어 大學生이 第一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判斷할 수 있다.

그밖에 (1) 民主-專制的 折衷型이 第1位를 占有하고 있으며 民主型이나 自由放任-民主의 折衷型 등이 2-3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民主型이나 民主型과의 折衷型은 차지하고 있는 比率이 70%를 上廻하고 있음을 볼 때 大學生들의 일반적 傾向이 民主型을 中心하여 追求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反面에 專制型과 自由放任型 등은 學生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以上을 綜合하여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事項을 지적해 낼 수 있다. 첫째, 韓國 大學生이 解放後부터 西歐의 民主主義思想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民主教

育과 民主政治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韓國 大學生들의 成長 및 教育的 背景 그리고 우리 時代的 與件을 고려하여 볼 때 그들이 우리 社會의 家父長的, 階層的 및 權威主義的인 體制(wright, 1973)의 影響을 받아 成長하였기 때문에 民主型이 아닌 民主-專制的 折衷型을 택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둘째, 專制型이 目標指向的이고 民主型이 成員指向的이라 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리더쉽 類型은 이 두 面을 다같이 指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韓國의 大學生이 民主-專制的 折衷型을 挾하였다는 것은 바람직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러나 一面 韓國의 경우 그들이 成長해 온 社會體制, 世代間의 能力 및 逆好의 差異로 專制的인 것과 民主的인 것 間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朴東緒, 1972)을 알 수 있다. 넷째, 韓國이 指向하고 있는 理念, 國是가 自由民主主義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民主主義가 들어 온지 30余年을 경과한 오늘 專制的 要素가 殘存하고 있다는 것은 人間의 意識構造의 變化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同時에 韓國의 名實相符한 民主主義 實現을 위해 大學生들로 하여금 民主主義的인 것으로 指向할 수 있도록 本人이나 社會가 努力하여야 할 點이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 安商之. 韓國西洋教育史. 서울: 載本文化社, 1978.
- 尹泰林. 韓國人的 性格. 서울: 玄岩社, 1970.
- 李圭泰. 韓國人的 意識構造. (下). 서울: 文理社, 1978.
- 朴東緒. 韓國行政論. 서울: 法文社, 1972.
- Wright, Edward. 韓國人的 政治意識.
- 크리스찬 아카데미主催. 西歐人이 본 韓國人에 관한 對話의 모임. 1973년4월4일 大韓日報.

Cartwright, D. & Zander, A. (Eds.) *Group dynamics*. New York: Harper & Row, 1968.

Hersey, P. & Blanchard, K. H.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New Dehli : Prentice Hall of India, 1974.

Stogdill, R. M. *Handbook of leadership*. New York: Free Press, 1974.

Terry, G. *Principles of management*. Homewood, Ill. : Irwin, 1960.

韓國心理學會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979, Vol. 2, No. 4, 252-258.

Yearly Trends in the Leadership Preference Among Korean College Entrants as Seen Through Their Preferred Child Rearing Modes.

Myong-Hoon Kim
Moung Ji University

Young-Yoon Chung
Psychology Section, Korean Military Academy

In order to find out what the younger generation's ideal leadership type is and whether the young people have a democratic attitude, incoming freshmen of a college from 1972 through 1979 (except the year 1978 for which data are lost) were asked to indicate one preferred type from among seven different leadership type itself, the question asked the subjects to choose one leadership type under which they would rather rear their children as parents. The number of subjects varied from year to year from 235 to 381. The principal findings were (1)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considered a mixture of democratic and autocratic types as most ideal; (2) the next most preferred types, in the decreasing order, were the democratic type, the mixture of democratic and laissez-faire, and the mixture of democratic, autocratic, and laissez-faire. The least preferred types were the laissez-faire type, the autocratic type, and the mixture of these two; and lastly (3) in 1979, as compared to previous years, the student preference for the mixture of democratic and autocratic declined while their preference for the democratic type clearly increased. The preference for the democratic type had been steadily decreasing since 1972 until 1977 before it showed an upturn in 1979.